

즐거봐~ 생태관광 느껴봐~ 힐링여행



순천 생태관광 일번지로 부상

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 인기
수학여행·체험학습 줄이어
3개월새 1만4802명 다녀가

중국서도 체험객 잇따라 방문
코레일 교육열차 'E-train' 연계
테마형 수학여행 상품 개발 박차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으로 순천이 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순천만 일대에 조성된 정원박람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에 국내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정원박람회장을 활용한 생태 관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순천만정원박람회 인기=순천에서 운영 중인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의 청소년 맞춤형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으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학습센터는 지난 4월 20일 순천만정원 개장과 함께 운영하면서 7월까지 3개월 만에 1만4802명이 다녀갔다.

7월 중에는 흑서와 폭우 등 악조건 속에서도

2000명이 넘는 체험객이 다녀갔다.

특히 순천시 우호도시인 중국 영파시를 비롯하여 항주초등학교, 북경대, 상해군명학교 등 중국에서도 체험객들이 참여했다.

체험학습센터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안에 있으며 숲, 습지, 갯벌, 식물, 정원 등 다양한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5종류의 체험 프로그램과 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지도사, 생태 해설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안전 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인력 배치, CCTV 등 효율적인 중앙안전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안전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수학여행이 최우선 고려대상인 만큼 수학여행 시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숙박업소 등의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여행과 생태 관광을 통한 힐링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교육열차 'E-train'과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수학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코레일, 학교, 언론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하는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들은 한옥형 숙박시설인 순천만에코촌에서 1박 후 다음날 낙안읍성을 시작으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순천만정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 규모를 학생들의 개별체험이 가능한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고, 안전을 전제로 7월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정부정책에 부응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고

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생태체험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수학여행 관광 상품을 협의할 계획이다.

E-train은 지난 7월 2일 개통한 코레일 교육열차로 총9량으로 구성돼 있다.

공간별 특화 학습 프로그램 진행 및 객차 간 포토 존인 트리아트, 우주, 뮤지, 명화 등이 있어 이동 중에 강연이나 세미나, 공연 등이 가능한 수학여행 개발상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수학여행이 최우선 고려대상인 만큼 수학여행 시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숙박업소 등의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여행과 생태 관광을 통한 힐링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기자 yji@kwangju.co.kr



생태관광을 통한 힐링여행으로 각광받고 있는 순천만정원.



전세계의 습지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순천만정원의 가을 나눔숲 코스모스 만개

순천만정원에 가을이 찾아 왔다. 순천시는 26일 "순천만정원에 가을꽃의 대명사인 코스모스가 만개해 가을이 성큼 다가섰음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나눔 숲(생태체험장 인근·사진) 일원 3만5000㎡ 부지에 조코스모스를 조성했다.

또 코스모스 개화에 맞춰 새롭게 단장한 꽃마차가 형형색색의 꽃 사이로 운행해 가을하늘과 어우러져 이색적인 가을풍경을 제공하고 있다. 포토존도 설치돼 관광객



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담을 수 있다.

순천만 코스모스는 10월 초까지 활짝 피어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연휴 및 가을여행을 위해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가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4월 20일에 영구 개장한 순천만정원은 개장 128일만에 17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가족단위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2만5000여명 관람

훈훈한 화제 남기고 폐막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도 큰 관심

'제2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ANF-FIS)'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영화인과 관객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순천시는 26일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순천만정원에서 개막한 제2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모두 2만5000여명의 관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개막식에서 '히마와리와 나의

7일'의 상영을 시작으로 순천만정원과 CGV순천 등 순천의 곳곳에서 동물영화제의 상영작을 만날 수 있었다.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로 구성된 첫 번째 섹션 '리얼리티 테일스', 반려동물의 삶을 그린 두 번째 섹션 '우리 곁의 동물들'이 관심을 모았다.

또 세 번째 섹션 '블로즈업'은 동물 문제를 집중 조명된 영화들로 선정했으며, 네 번째 섹션인 '키즈 드림'은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사랑스러운 영화들로 관객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지난 23일 순천의 허파인 동천길을 따라 영화제가 열린 순천만정원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힐링산책'에는 150여 가족들이 참석해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이 밖에 영화제 기간에 열린 '반려동물 산업박람회'에는 국내외 총 25개 업체가 참가,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는 관객들과 반려가족,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했다"며 "6일 동안 풍성한 기획으로 모두가 만족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

최상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No.1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유대복상사|